

인공 총무원장 “임기 중 사퇴 안한다”

태고종 신년 기자간담회서 밝혀... “선암사 분쟁 합의될 것”

“일부 종도의 탄핵 시도가 있었지만 임기 중 사퇴는 없으며 종단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

태고종 총무원장 인공 스님은 1월 19일 서울 한국불교전승관에서 신년 교계 기자간담회를 열고 불기 2555년(2011년) 종단 역점사업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스님은 “나는 한 번도 사퇴하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 총무원장은 임기가 정해져 있다. 주어진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배석한 총무부장 상하 스님도 “11월 총회에서 총무원장 탄핵을 통한 종권 흔들기가 무산됐지만 여전히 재시도 움직임이 남아 있다”면서 “한국불교전승관 불사 등 시급한 총무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공 스님은 “조계종-태고종간 분규사찰인 순천 선암사 소유권 분



쟁 해결을 위한 협의위원회를 구성했다. 봉원사 합의를 이룬 선례가 있는 만큼 조계종과의 선암사 합의도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조계종 중앙종회 순천선암사문제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일문)는 태고종에 각 5인의 협의위원을 위원회에는 태고종

부위원장 화경 스님과 총무부장 상하 스님, 선암사 주지 경담 스님이 당연직으로 참여하며 20일 선암사 전산총회를 열어 2인의 위원을 선출한다.

이를 위해 태고종은 20일 선암사 전산총회를 열고 태고종 측 5인의 협의위원으로 당연직인 부위원장 화경 스님, 총무부장 상하 스님, 선암사 주지 경담 스님 외에 지암·정화 스님을 선출했다.

또, 태고종은 교육기관 편제 정비를 통한 인재불사를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한국불교문화전승관에 지리한 법륜승가전문대학을 중앙승가전문대학원으로 명칭 변경하고 대교·사집 과목 중심의 전문교육기관으로 운영키로 했다.

승가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4학기제로 학기별 전문강사제를 도입키로 했다.

조동섭 기자

전국에서 민족문화수호 결의대회 열린다

1년 동안 교구본사별 시행

민족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한 불교계의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수원 용주사(주지 정호)는 1월 21일 용주사 효행교육원에서 ‘민족문화수호와 종교평화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용주사에 이어 전국 각 교구본사별, 광역시도별 민족문화수호위원회가 결성되고, 민족문화수호와 종교평화를 위한 결의대회가 잇따라 개최된다.

용주사 결의대회에는 본말사 스님 60여 명과 신도 임원 500여 명이 참석해 자성과 쇄신을 통한 새로운 불교로의 변모를 발원하고 민족문화 수호를 위한 의지를 다졌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1월 17일 불교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이같은 지역별 민족문화수호 움직임에 불교 각 단체들과 불자들이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자승 스님은 “현재 종단이 펼쳐고 있는 민족문화 수호 활동은 누구를 탓하기 앞서 우리 스스로 잘못된 지난 과거를 참회하고 긴 호흡으로 변화하고 쇄신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으며 함께 하자는 운동”이라며 동참을 당부했다.

이번 지역별 결의대회를 앞두고 각 지역 교구본사는 종단 방침에 힘을 모을 것을 밝혔다. 용주사와 본선사는 13일 경기도의 도내 39개 전통사찰에 대한 보수 및 정비사업비 61억3750만원 지원안에 대해 종단의 별도지침이 있을 때까지 보수 및 정비사업비 수령을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앞선 7일, 민족문화수호위원회(공동위원장 정우·원행·영담 스님)는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첫 번째 연례회의를 열고 지역별 수호위 조직을 구성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노덕현 기자

불학연 호국불교 인식 바꾼다

조계종이 호국불교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조계종 불학연구소(소장 원철)는 1월 17일 호국불교연구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 위촉식에 이어 호국불교연구 첫 회의를 개최했다.

자문위원회에는 진욱 스님(여수 석천사 주지)과 김경집 진각대교수, 김덕수 군종법사, 김상영 중앙승가대 교수, 남동신 서울대 교수, 정병삼 숙명여대 교수, 한진수 원광대 초빙교수 등이 참여한다.

노덕현 기자

진각종 ‘진각문화전승관’ 낙성

진각종은 1월 17일 서울 하월곡동 총인원 내 ‘진각문화전승원’ 입주불사를 갖고 중앙종무기관 이전준비에 들어갔다.

진각문화전승원은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로 전통양식과 현대식 시설이 조화된 건물로 복합전시관과 종조박물관, 밀교체험공간 등을 갖추고 있다. 진각종 중앙종무기관은 전승원 3층과 4층에 자리하게 된다.

노덕현 기자

의연·만당 스님 백양사 종회의원 당선

조계종 제18교구 백양사 중앙종회의원에 의연 스님과 만당 스님이 당선됐다.

백양사 교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범일)는 “1월 17일 백양사 중앙종회의원 재선거를 실시한 결과, 53표를 얻은 만당 스님(영광 불갑사)과 47표를 얻은 의연스님이 당선됐다”고 발표했다.

조동섭 기자

정범 스님, “종도들에게 참회합니다”



정범 스님이 민족문화 수호를 위한 천막정진에 들어갔다. 사진=박재원 기자

나아갈 방향을 함께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7년 가야산 보존을 위해 천막정진을 한 스님은 당시 불교계와 시민사회의 연대로 순환도로 추진 등 각종 개발계획을 저지한 경험을 예로 들었다.

스님은 “민족문화수호활동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서 우러난 국민적 지지와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천막정진을 육천암 1000일 기도 중 8차 100일 기도로 진행 중이지만 회향일은 무기한이다. 스님은 “민족문화 수호 의지가 교계 전체로 확산돼 실천으로 옮겨지는데 미력하나마 동참하고 싶다”고 말했다.

스님의 일과는 보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법들을 찾는 데 맞춰져 있다.

스님은 오전 동안은 기도와 참회로 보내고 오후에는 지율 스님의 4대강 사진전 봉사 등 대외활동을 겸한 대중과의 소통에 나선다. 오후불식을 기본으로 숙식은 천막에서 해결한다.

노덕현 기자

법일 스님, 구족계 삭제 심판 청구

“총무부가 무단 삭제 불이익·명예훼손 당해”

청송 대전사 주지 법일 스님이 1월 20일 총무원이 자신의 구족계 수지 기록을 삭제한 데 대해 총무부장 영담 스님을 상대로 호제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스님은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후보자격과 관련해 구족계 수계 사실 여부를 이유로 총무원 총무부와 공방을 벌여왔다.

법일 스님은 심판청구서에서 “총무부와 영담 스님이 종법에 의하지 않고 총무부장 전결로 제소인의 구족계 수지기록을 무단으로 삭

제하고 승적기재사항을 임의로 변경 처리했다”며 “총무부의 부당한 처분과 직권남용으로 불이익을 받고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밝혔다.

이어 스님은 “법규위원회가 제소인의 구족계 수계를 인정한다고 결정했음에도 총무부장이 제소인의 수계 기록을 임의로 삭제한 것은 법규위원회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총무부장의 직권남용에 대한 조사와 법규위원회법 위반 혐의 등을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앞선 18일 총무원은 영천 은해사에 법일 스님의 구족계 수계 기록 삭제를 알리는 통보문을 발송했다.

조동섭 기자

관음종 제13대 중앙종회 출범

관음종이 1월 13일 제48차 중앙종회를 열고 제13대 중앙종회를 출범시켰다.

이날 종회에서는 종회의장에 범명 스님, 부의장에 혜동·해산 스님이 선출됐다.

2555년(2011년) 주요 사업으로

개산초 태허 조사 선양 사업, 영산계단 수계 산림 봉행, 한중일대회 등 국제교류행사 동참, 개교 5년차인 서울불교문화대학 활성화 등을 정하고 이를 위한 예산 46억 8900만원을 승인했다.

조동섭 기자



자승 스님, 구제역 순직 공무원 위로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이 구제역 방역 중 순직 공무원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했다. 자승 스님은 故 금찬수(안동시청)씨와 故 김경선씨(영양군) 유가족들을 1월 18일 총무원 4층 접견실에서 만나 장학금을 전달했다. 자승 스님은 유가족들에게 미리 준비한 단주를 직접 손목에 채워주며 용기를 잃지 말 것을 당부했다. 자승 스님은 “슬픔을 이겨내시길 바란다. 유가족들을 위해 종단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기범 기자

大韓佛教禪覺宗 宗正 暎潭堂 正業大宗師

대한불교선각종 종정 영담당 정업대종사님의 다비식에 참여해주신 대덕큰스님과 각급 기관장 및 사부대중에게 감사드립니다. 선각종 전종도는 큰스님의 유훈을 받들어 화합하고, 늘 깨어있는 종단을 만들고자 수행정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큰스님 49재를 아래와 같이 봉행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49재 일정

- ◆ 초재 : 1월 20일 (음 12월 17일) 목요일 강진 선각총림 움천사 (061-433-2233)
- ◆ 2 재 : 1월 27일 (음 12월 24일) 목요일 광주 무애정사 (062-229-2911)
- ◆ 3 재 : 2월 3일 (음 1월 1일) 목요일 각 문도사찰 동시봉행
- ◆ 4 재 : 2월 10일 (음 1월 8일) 목요일 순천 죽림정사 (061-751-6366)
- ◆ 5 재 : 2월 17일 (음 1월 15일) 목요일 강진 흥덕사 (061-433-4870)
- ◆ 6 재 : 3월 24일 (음 1월 22일) 목요일 광주 미륵사 (062-263-0108)
- ◆ 7 재 : 3월 1일 (음 1월 27일) 화요일 강진 선각총림 움천사 (061-433-2233)

※ 문의 : 종무소 061)433-3233 / 법진스님 010-3605-0207

- 증명도문 원응 창호
- 장의위원장 정암
- 장의부위원장 백혜 혜수
- 장의위원 해관 혜종 혜승 혜능 혜옥 원주 청호 설화
- 집행위원장 혜룡
- 집행부위원장 진목
- 집행위원 혜승 혜능 혜옥 원주
- 진행위원장 진원
- 진행위원 원정 진원 진원 진목 진하 태승 진권 진덕 진안 진송 진제 진철 진봉 혜명 형진 도진 성진 진담 광진 지광 진광 행진 서진 법통 다행 해광 해진 해민 법인 진석 진경 진여 원영 성법 진산 우진 진간 법진 무령 진오 해산 현종 덕성 도우 무관 명조 묘진 법해 보문 성덕 성우 원종 원명 수진 은광 일진 자광 정진 진담 진보 진학 원종 혜덕 도성 산인 원진 선진 진환 명일 선정 혜연 선지 목연 선보 선법 선주 선우 선우 선행 묘선 천봉 현지 혜인 혜경 학선 (무순)

선각종 거사림회 선각총림 움천사 신도회 · 관음회 · 무등산 미륵사 육법공양 선양회